

의견서(위원별)

구분	의견
A업체	4기 업체 중 전시 현장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어쨌든 작품의 품질은 승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인정한 대상이다.
B업체	플로폴리옌에 드그만 작품이 무난하되만 그리 수준 높거나 각성 특유의 재치나 참신함이 부족하다. 이번이 인정한게 전시는 가능할 듯.
C업체	전시이벤트 어떤 비주얼 넣기 가능한지, 포드폴리옌을 봤을 때 어떤점이든 모르다. 이쪽쪽이든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D업체	제안서가 다르면, 우리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담을 점이 든말이다. 이번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이번 전시가 있어서 사회적 인정한 점이나 할 수는 있을 듯하다. 제안서는 문장이 될 수도 ...
전체	제안서만으로 판단했을 때 A업체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위원 성명

2017.06.23

김진 

의견서(위원장)

구분	의견
A업체	전시기획과 전시내용이 비교적 판단하기에 차이가 도어'에서 전시진행순서에 차이가 없어 보이고, 전시구체역시 DDP에서 진행하기에 의미가 있는것으로 생각됨.
B업체	전시를 위한 작업의 순서가 헷갈리게끔은 부족하긴 하지만 어떤결과물이 나오지에 대한 영감이 있음.
C업체	전시 아이디어는 흥미로운 공간에서의 실행 및 설치에 대한 구체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기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성이 부족하긴 않음.
D업체	전시운영에 대한 계획은 잘 세워졌으나 주제에 대한 통찰이나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함.
전체	학생들의 관심과 대안들이 아직까지 전문가적인 수준이 아니지만 전시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위원 성명 최성민

2017.06.23



의견서(위원별)

구분	의견
A업체	기준 전시와 차별화된 심내전시만의 새로운 기획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인정하다.
B업체	번개 재안과 상에서 제안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작품이 아직 도출되지 않거나 많은 양의 양육 위해 관계에서 실제 전시 작품에 대한 인증을 필요한 부분 인정하다.
C업체	번개 재안과 상에서 주제에 대한 작품이 아직 도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전시 양육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D업체	
전체	

위원 성명

장혜진

2017.06.23

